

“중국불교 정착에 민간 포교사 활약”

불광연구원 ‘중국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세미나에서

인도에서 발생한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중국에서 어떻게 민간에 정착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 다양한 능력을 지닌 민간포교사들의 활약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불광연구원이 5월 10일 서울 불광사 교육원에서 개최한 ‘중국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학술연찬회에서는 중국전법과정에서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이 조명됐다.

이날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는 ‘중국의 민간불교결과와 전법사들’ 발표를 통해 중국불교 전법과정에서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경사(經師), 복강사(覆講士), 창도사(唱導師), 유행승(遊行僧) 등 다양한 전법사와 스님들이 있었으며 민간포교가 급속히 진전된 수당시대에는 설법사(說法師) 등의 전문포교사가 배출됐다. 또 각 마을마다 신앙 결사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에는 최소 1명 이상의 포교를 위한 포교사들이 있어 마을마다 다니며 전법활동에 매진했다.

김 교수는 “남조에서는 팔관제회 등에 반드시 창도사가 초청돼 뛰어난 말재주로 비유와 인용담을 섞어 평이하게 불법을 설명했다. 예회에는 경사도 초청돼 경사가 전독을 하면 창도사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스님들 외에도

민간 전문강설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창도사의 경우 설법뿐만 아니라 음악에 소질을 갖고 있어 음성으로 민간의 종교적 감성을 이루만져 준 사람들이었다”고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포교사들이 풍부한 성량 등으로 범패와 전독(轉讀)에도 능했으며 불교경전 외에도 사서와 유교, 시에도 달통한 사람들이었음을 밝혔다.

복강사·창도사 등 전문 계층 발달 수·당시대 마을마다 신앙결사 조직 “전법정신 고찰·방법론 배우자”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북조에서는 사찰 중심의 전법이 아닌 민간 도읍 중심의 전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방지역의 경우 민간교화를 위해 노력했던 결사조직인 의읍과 그 활동가인 읍사가 있었다”며 “조직 안에 1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교화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종래의 의읍은 사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친목과 신앙공동체였지



김성순 금강대 교수(사진 왼쪽)는 5월 10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전법론 세미나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정착되기까지의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이 컸으며 이들의 역할을 현대불교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읍으로 변화하며 그 중심에 사원이 존재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원의 승려들의 역할도 종래의 읍사와 달리 사원에 정주하며 포교하는 것으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북송대 이후부터 의읍의 족적이 중국불교사에 사라지며 법사의 형태는 승려들의 지도를 받는 불교결과로서 명맥을 이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이들은 공덕신앙을 발달시켰으며 돈황과 용문, 운강 등 석굴과 각종 조상, 불화 사원 등을 우리에게 남겨준 주체”라며 “이들의 모습을 오늘날 되살리는 것은 불교의 생명력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법은 단지 불교의 교세를 널리 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역대 전법사들의 정신을 고찰하고 그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은영 금강대 HK교수의 ‘역경과 찬술을 통한 전법’, 석길암 금강대 HK교수의 ‘변문을 통한 대중전법’,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종파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도 각각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청화사상연구원, ‘염불과 선’ 학술세미나

5월 23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청화사상연구원(원장 박선자)은 5월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청화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염불과 선-염불선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의 ‘초기와 부파불교에 나타난 염불과 선’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최동순 동국대 연구교수의 ‘무주당 청화 스님의 전태교관 이

해’가 발표된다.

토론자로선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양승규 동국대 박사, 이병욱 고려대 박사가 각각 나선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염불선은 동아시아 불교를 넘어 인도불교의 수많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수행의 근본이며 중심수행법”이라며 “오랜 불교역사에서 전개돼 온 다양한 수행 전통 중 염불선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과학과 생명’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이진우·조수동)는 5월 24일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자핵 개발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그 대안적 과

제’, △변현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 △박병기 한국외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에너지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윤리적 대안’,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조망’을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선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6월 13일 서울 우리선우 법당에서 ‘선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어학을 연구하고 논문화하는 과정 속 현대적 번역에 대한 중심을 잡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백

파공선의 〈선문수경〉에 나타난 선어용례 연구’ △동국대 영석 스님의 ‘〈선문영송집설화〉에 나타난 선어’ △동방대학원대 인경 스님의 ‘평상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식 동국대 HK연구단 연구원의 ‘昭昭靈靈 개념의 변천에 대해’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 과문(科文) 전통’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대 인문대학 신앙학술정보관 302호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科文)의 전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심원

스님의 ‘과문과 회본(會本)’ △김주경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의 ‘과문을 통해 본 경제석(經題釋) 변천’ △명법 스님의 ‘능엄경 과문에 나타난 주석적 관점의 비교’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의 주석 전통’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40집 발간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최근 〈인도철학〉 40집을 발간했다. 이번 40집에는 △권오민 박사의 ‘上座슈리타라의 一心’ △박정환 박사의 ‘아빠 탈라나가 (Apalaga) 이야기’를 통해 불교 내러티브 연구’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

의 편집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담론(談論) 그리고 욕망-유식사상과 파루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요가철학에서 거론하는 소지성(vedyatva) 개념의 함의(含意)’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성보문화재 3점 보물 지정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의성 대곡사 대웅전

성보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 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12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을, 15일 의성 대곡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보물로 지정 예고 된 가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보물 제1824호로 지정됐다.

봉정암 오층석탑은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m 높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석탑으로 만해(1879~1944) 스님이 1923년 쓴 ‘백담사 사적기(百潭寺 寺蹟記)’의 ‘봉정암 중수기(1781년)’에 따르면 신라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7과가 봉안돼 있다. 봉정암은 이 탑의 사리로 인해 5대 적멸보궁(寂滅寶宮) 중 하나로 꼽힌다.

호형적인 특징으로는 거대한 자연 암석을 기반으로 삼아 그 위에 올린 탑신석을 올렸다. 이는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려 후기에 단순화돼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15일 지정 예고 된 의성 대곡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1687년(숙종 13) 태전 스님이 중건했다.

대곡사 대웅전은 의성 지역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시대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대웅전의 정면과 양 측면의 기둥 아래에는 마루가 설치됐던 것으로 보이는 큰 구멍이 있는데 불전 정면에 마루를 둔 구조나 배면의 영쌍창은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고식(古式)이다.

의성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 스님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창건 시기는 이규보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유구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보물 지정이 확정된 가장 장안사 석조삼



봉정암 오층석탑

불좌상은 17세기 중엽 녹원(麓元) 스님이 수조각상(首彫刻像)을 맡아 1659년에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불석(佛石)으로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중후반 불교 조각사 연구의 기준으로 꼽힌다.

노덕현 기자

영주댐 수몰 예정지에 보물급 성보문화재 출토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문화재연구소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의뢰로 수몰예정지인 영주시 평은면 일대를 발굴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에 금강사(金剛寺)라 불린 사찰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서 광명대(耑佛)와 등불을 받치는 기구와 양유관음보살 새김 경상(鏡像) 등의 불교양구 등 고려시대 유물을 다량 확인했다.

이 중에서 광명대는 제작 시기와 동기 등을 확실히 밝혀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작 시기와 내력을 기록한 고려시대 광명대는 동국대박물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 중인 원주 법천사지 유물을 비롯해 몇 점이 남아 있지만, 확실한 출토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학술자문회의, 전문가검토회의 등을 거쳐 보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VD-675 : 115,000원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로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민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향신채기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
氣giban

성물받이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편한
氣giban

氣giban
원산 산악과
한방 약향
나뭇잎
내입
만들었습니다